



미 증시, 파월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의 발언 소화하며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2 일(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암호화폐 시장 폭락,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을 앞둔 대기심리로 상단이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파월 의장을 포함한 주요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한 영향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다우 +0.2%, S&P500 +0.5%, 나스닥 +0.8%). 업종별로는 유틸리티(-0.7%), 부동산(-0.4%)를 제외한 경기소비재(+1.0%), 기술(+0.9%), 커뮤니케이션(+0.8%)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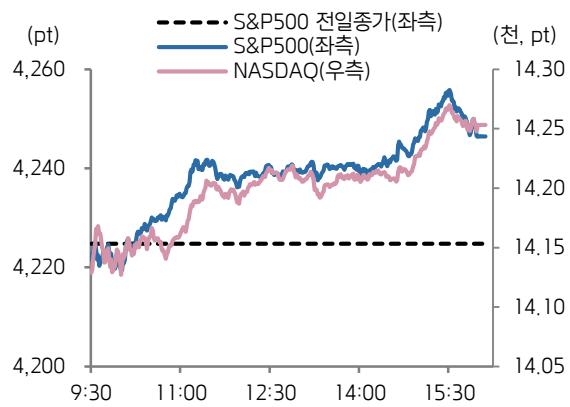
파월 의장은 경제 재개에 따른 소비 회복, 에너지 가격 강세, 병목 현상 등으로 최근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나, 일시적 요인(병목현상, 코로나발 기저효과 등)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며, 가을에는 강력한 고용 창출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고용이 너무 높다고 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 급등이 일시적이며 2021년에 2%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테이퍼링은 지표의존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고 통화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고용 측면에서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언급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 지표의 단기적인 급변화에는 대응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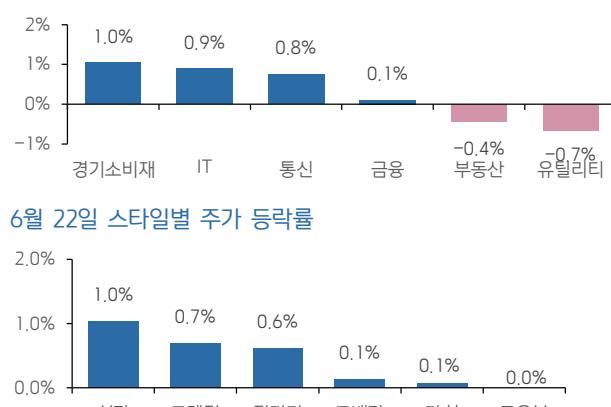
전일 파월의장 등 주요 연준위원들의 발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지난 19 일(금)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급격한 스탠스 전환을 했다는 점이 시장 불안을 유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 이번 주 남은 기간에도 내내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은 이들의 발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배적일 것으로 판단,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준 위원들이 전망했던 것처럼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후로 수시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6월 22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0%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3.7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파월 의장 등 연준위원들의 시장 달래기성 발언 이후 국내 증시 투심 변화
- 미국 반도체, 소비 관련주 강세가 국내 관련 업종으로 훈풍이 이어질지 여부
- 암호화폐시장 추가 폭락이 국내 중소형주들의 수급 급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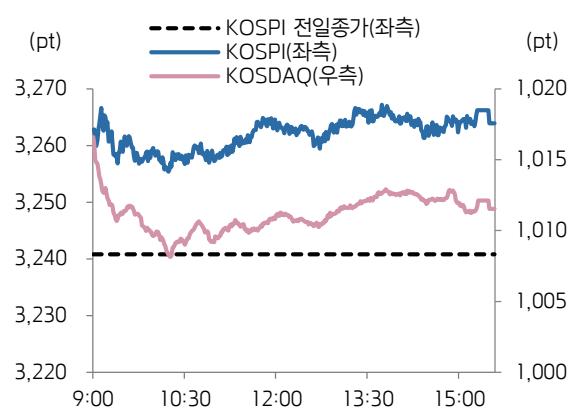
22 일(화) 코스피는 중소형주 중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 연준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정상화 기대감 지속,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매크로 환경 개선에 힘입어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 위주로 3,000 억원대 순매수세에 나섬에 따라 상승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0.01%)

업종별로는 의약품(-1.14%), 비금속광물(-0.1%)을 제외한 섬유의복(+3.3%), 운수장비(+2.6%), 철강금속(+2.4%), 건설(+2.2%) 등 전업종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186 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75 억원, 3,382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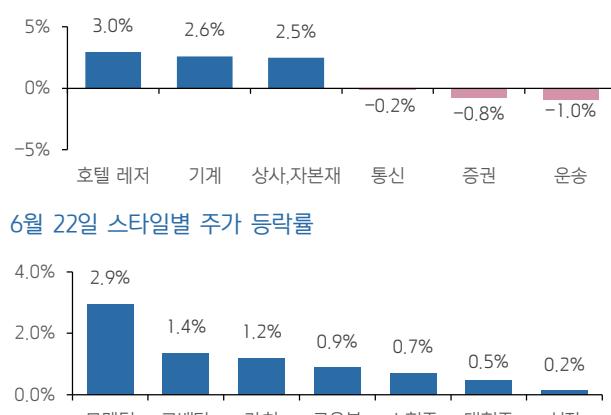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출현한 달러화 강세 제동, 미국 시장금리 변동성 진정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환율 변화와 미국 업종 주가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증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향. 전거래일 미국 반도체 포함 기술주,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들로의 외국인 수급 유입을 주시해볼 필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의 성격이 짙으므로, 경기 민감주 VS 성장주, 대형주 VS 중소형주 등 업종, 테마 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최근에는 업종, 테마 간 순환매가 돌더라도 해당 군에 속한 종목들이 동일한 주가흐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업종, 테마 내에서도 2 분기 포함 실적 전망이 우월한 종목군들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의 장세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22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2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